

『인간실격(人間失格)』에 드러나는 성서적 메시지

채 속 향*

차례

- 서론
- 본론
 - 1. 죄의식
 - 2. 구원
 - 3. '신'의 문제
- 결론

서론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인간실격(人間失格)』은 잡지 「전망(展望)」에 1948년 6월부터 8월까지 연재된 작품이다. 다자이 오사무는 전후 공산당에 경도되었던 다나카 히데미쓰(田中英光)나, 함께 ‘무뢰파(無賴派)’로 불리웠던 이시키와 준(石川淳), 사카구치 안고(坂口安吾)와는 달리 전쟁을 냉안시하며, 패전에 의한 해방감이나 활기를 느끼지 못했다.¹⁾ 1946년 도쿄로 상경한 후 절망을 노래하는 데에만 치중했던 다자이는 결국 그 멸망의 노래의 마지막 형태가 되고 만 『인간실격』을 남기게 되고, 이 작품은 당시 다자이의 센세이셔널한 정사(情死)와 맞물려 ‘작자 자신의 최고 문학형태의 유서이며, 자화상이 다’²⁾라는 평가를 받으며 다자이가 죽은 직후부터 다방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사실 1955년 대 전반까지의 다자이 오사무론은 『인간실격』을 핵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문학을 논하는 수많은 키워드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로 성서와의 관련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다자이 자신이 기독교 신자로서 본격적인 기독교 문학을 지향한 것은 아니었지만, 성서 자체가 다자이 자신과 작품에 끼친 영향은 이미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이다. 특히 『인간실격』의 경우, 성서와의 관계를 배제하고는 논하기 어려운 작품으로서, 다다이 문학과 성서의 관계에 대해 언급할 때 반드시 등장하곤 하는 작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다이의 문학 세계와 성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다이아가 성서를 ‘율법적’으로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복음적’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두 가지 큰 흐름 아래 다양하게 변주되며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연구 결과에 비해, 작품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다다이와 성서와의 관계를 직접 조명한 연구는 빈약한 편이다. 다나가 요시히코(田中良彦)의 지적과 마찬가지로³⁾ 다다이와 성서, 기독교와의 관계는 다소 포괄적으로 검토되어 온 경향이 있다. 물론 노하라 가쓰오(野原一夫)⁴⁾처럼, 작품 속에 나타난 성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이는 한 텍스트의 종합적인 작품 분석이라기 보다는 다다이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성구(聖句)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작품의 내용을 종합해 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특히 『인간실격』의 경우, 사고 준이치로(佐古純一郎)가 ‘다다이의 그리스도론’⁵⁾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로 성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이 그 밖의 다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서와의 관계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만이 다다이 문학과 성서와의 관계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데 이용되고 있을 뿐, 성서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본격적인 작품론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다이의 다른 작품에서는 종종 성구(聖句)가 등장한다.⁶⁾ 그러나 이에 비해 짧은 성구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인간실격』을 성서와 어떻게 관련지어 논할 것인가는 상당히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지금까지 다다이 문학과 성서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상당수가 다다이의 전기적 사실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고,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한 사례는 많지 않다. 특히 텍스트를 중심으로 분석한 사례들은 거의 텍스트에 등장하는 성구를 중심으로 하여, 그 성구의 종교적 의미와 다다이의 성서 수용 태도를 일치시켜 파악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 소고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텍스트에 등장하는 직접적인 성구를 가지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작품 속에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 의식들이 성서 내용 그 자체가 아닌 성서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 기독교적 이념, 성서적 메시지와 상당 부분 연결되어 논해질 수 있음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성서적 메시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인간실격』을 분석해 보

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서적 메시지란 성서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 기독교적 논리, 이념들을 가리킨다. 기존의 상당수의 연구들이 성구를 중심으로 행해졌던 것과는 달리, 성서를 통해 드러나는 기독교적 이념을 중심으로 하여 텍스트를 분석해 나갈 것이다. 이는 다양한 성서적 메시지를 테마로 그 속에 여러 텍스트들을 조합해 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인간실격』이라는 텍스트 안에 드러나는 여러 성서적 메시지들을 『인간실격』이라는 하나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여 조합해 나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텍스트 원문의 인용은 다자이 오사무 전집 제 9권(太宰治全集 第9卷) 『人間失格』(1956년, 筑摩書房)에 의하며, 한국어 텍스트 인용은 20세기 일문학의 발견 『인간실격』(허 호역, 1995년, 웅진출판사)을 참조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본론

1. 죄의식

이 작품은 소설가인 ‘내’(私)가 우연히 입수한 수기의 주인공인 27세 모르핀 중독자 오바 요조(大庭葉藏)의 사진에 대한 인상을 서술하고 있는 「머리말」과, 이 수기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서술하고 있는 「후기」사이에 주인공 오바 요조의 회고 형식의 수기가 삽입된 전형적인 액자 형식의 소설이다. 즉, 외부 시점의 나레이터가 이끌어가는 머리말과 후기 부분을 제외한 수기 부분(제 1수기, 제 2수기, 제 3수기(1),(2))을 오바 요조라고 하는 주인공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요조라는 인물은 수기를 이끌어 나가는 나레이터이자, 이 수기에 등장하는 사건의 중심 인물로,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수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요조의 시각을 통해 전달되고, 요조의 관점을 통해 해석된다.

너무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다는 첫 마디로 수기를 시작하고 있는 주인공 요조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소위 ‘세상’이라는 것과 소통하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너무도 다르다는, 서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절망과 불안에 빠져 있는 요조는 수기의 맨 처음부터 이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나로서는 인간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⁷⁾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 도입부는 하나의 논리가 전개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이렇게 자신이 ‘인간의 삶’, ‘세상’이라는 것에서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대체 인간다운 생활이란 어떤 것이냐는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도입부를 단순히 ‘인간의 삶을 모른다’는 식의 표면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논리는 이후 전개될 모든 사건과 의문의 시초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도입부의 이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요조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생활이란 요조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 주게 되고 이는 곧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불안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러나 자신에게 이렇게 엄청난 불안과 공포를 주는 ‘인간’, ‘세상’과의 관계를 끊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요조는 최후의 방법으로서 ‘익살’이라는 것을 생각해내게 되고, 오로지 이를 통해 세상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내면적으로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면서도 겉으로는 남들을 웃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요조는, 특유의 고독한 분위기와, 스스로 자신의 ‘부끄럼 많은 생애’의 중대한 원인이 된 습성의 하나라고 지적한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점차 ‘인간 실격’이라는 파멸을 향해 치닫게 된다.

이러한 주인공 요조에게 있어서 ‘죄의식’이라는 문제는, 자신의 모든 불안과 공포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죄의식’의 문제는 비단 『인간실격』뿐만이 아니라 다자이의 상당수 작품에 있어서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으로, 다자이 문학의 윤리적 측면에 관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의 주인공 요조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란 그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고민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였다. 본질적으로 비참한 인간의 모습은 그 시작부터 죄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조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인간’의 모습과 ‘죄의식’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도고 가쓰미(東郷克美)는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합법적인 세계의 인간들에 대한 위화감, 또는 그러한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상’에 대한 소외감이라는 것이 요조가 말하는 ‘인간의 불가해(不可解)함이 되고 있다」⁸⁾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과 거기서부터 시

작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의문, 그리고 죄의식이 어떻게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지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어둠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비참한 패배자나 배덕(背德)자를 가리켜 하는 말이지만, 저는 스스로가 태어날 때부터 어둠의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어, 세상으로부터 어둠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반드시 다정한 마음씨가 됩니다. 그리고 저의 ‘다정한 마음씨’는 제 자신이 반할 정도로 다정한 마음씨였습니다.⁹⁾

요조가 느끼는 죄의식은 매우 원초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어둠의 자식’이라는 표현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요조의 ‘죄의식’은 그 성격에 있어서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원죄 의식’과 매우 흡사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필연적으로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원죄 의식’은 역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의 희생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기본 성립 논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요조가 안고 있는 ‘죄의식’ 역시 요조가 처음부터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면서 생겨난 것으로, 필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지적했듯이 요조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인간 불신이라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그러한 불신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인간 자체에 대한 것이므로, 특정의 행위에 기준을 둔 죄의식이 아닌, 날 때부터 필연적으로 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원죄 의식’이야말로 요조가 느끼는 ‘죄의식’의 성격에 가장 가깝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저의 불행은, 모두 저의 죄악에서 나온 것이라, 누구에게도 항의할 방법이 없고 또한 우물거리며 한 마디라도 항의 같은 소리를 한다면, 넘치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 모두, ‘그런 소리가 잘도 입에서 나온다.’고 놀라 자빠질 것임에 틀림없으니, 저는 도대체 속된 말로 ‘멋대로’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너무나 마음이 여린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죄악 덩어리인 듯, 스스로 한없이 불행해질 뿐이기에, 막아낼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의 인용문 속에서 요조는 자신의 불행을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깊은 죄의식에서 생겨난 이런 지나친 자기 확대는 예민한 성격과 더불어 스스로를 비하하고 더 큰 고뇌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 뭔가 불만이 있고, 항의할 일이 있어도 이를 토로하지

못하는 것은 요조에게 항상 이러한 부당함이 결국 모두 나의 잘못, 나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자기 비하적인 의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과도한 자기 비하 의식 뒤에는 단순히 깊은 죄의식뿐만 아니라, 조금은 다른 의도 역시 포함되어 있음을 함께 읽을 수 있다. 노하라 가쓰오는 다자이 오사무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죄가 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죄 많은 자는 그 사랑도 깊다」는 자각도 계속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¹⁰⁾, 결국 이러한 작자의 의식이 요조의 자기 비하적인 죄의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죄의식이 자기 비하에 가까워질수록, 인간과 그 삶 자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요조는 자신의 깊은 죄의식의 이면에, 스스로가 죄의식 한 번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간’보다 뛰어나다는 자부심을 은근히 숨기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원죄론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 말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독자성을 승인하고 그것을 찬미하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서는 원죄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다.¹¹⁾ 요조의 죄의식이 단순히 자신의 죄가 깊다는 사실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과 ‘세상’에 대한 자신의 통찰 역시 뛰어나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을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과 차별화시키고자 했다는 면에서, 요조의 죄의식은 다시 한 번 기독교의 원죄 의식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의 죄를 자각한 인간이 죄를 자각하지 못한 인간보다 더 잘 유포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한 도리이 구니오(鳥居邦郎)의 지적¹²⁾처럼, 요조의 깊은 죄의식의 이면에는, 인간, ‘세상’의 정체를 꿰뚫어본다는 점에 있어서 자신이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기와는 달리 전혀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마냥 밝고 명랑한 불신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비판과 조소가 스며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요조가 가지는 ‘죄의식’의 원죄적인 성격은 요조로 하여금 ‘죄의 실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하는 요인이 된다. 작품 속에서 호리키와 벌이는 반대말 알아맞히기 중, 죄의 반대말을 찾는 부분은 요조의 이러한 의문을 잘 보여준다. 세키구치 야스요시(關口安義)는 이를 「죄로부터의 해방을 원하는 익살꾼의 기도, 환언한다면 작가 다자이 오사무의 깊은 죄의식으로부터 나온 말」이라고 하고 있다.¹³⁾

“하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것만이 죄가 아니야, 죄의 반대를 알게 된다면, 죄의 실체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하느님, 구원, 사랑, 빛, 하지만 하느님에게는 사

탄이라는 반대가 있고, 구원의 반대는 고뇌일 것이고, 사랑은 미움, 빛은 어둠이라는 반대가 있지. 선에는 악, 죄와 기도, 죄와 후회, 죄와 고백, 죄와, 아아 모두 동의어로군. 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¹⁴⁾

“난생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격심한 분노의 소리”가 날 정도의 진지함으로 이 놀이에 임했던 요조는, 결국 죄의 반대말을 찾아 내지 못하고, 따라서 죄의 실체도 파악해내지 못한다. 요조는 인간의, 세상의 본질을 알게 된다면 그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는 것처럼, 죄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이 끝을 알 수 없는 죄의식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원죄’라는 것은 실체를 알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적 논리에서 볼 때,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안게 되는 것이고, 요조가 갖고 있는 죄의식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고, 이를 통해 구원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요조의 경우 자신의 죄는 깊이 자각하고 있으나, 이를 속죄를 통해 구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특이한 ‘원죄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에바 다카오(饗庭孝男)¹⁵⁾ 죄의 자각이 속죄 행위에 이르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이를 ‘독특한 원죄 관념’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단순한 죄의 자각에 그치고 만 요조의 죄의식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요조의 죄의식이 단순히 죄의 자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속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기독교적 ‘원죄 의식’에 완벽하게 충실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요조의 죄의식은 자기 비하로 흐를 정도의 심각한 것이었다. 자기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요조가 그러한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죄’를 바라보는 요조의 시각이 기독교의 그것과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사토 야스마사(佐藤泰正)는 다자이에게 있어서 ‘죄’가 기도나 고백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하고 있는데¹⁶⁾, 요조가 ‘죄’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요조는 ‘죄’의 반성과 속죄를 통해 구원받기 위해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질의 비참함과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죄’의 근원을 묻기 위해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자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2. 구원

요조는 결국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비참함에 대한 절망, 근본적인 죄의식 속에서 끝없이 좌절하게 된다. 속죄를 통해 죄를 뉘우치고 신에게 구원받고자 하기 보다는, 그저 자신의 죄가 깊음을 두려워하며 미리부터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단정짓고 있는 것이다.

저는 하느님마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믿지 못하면서도, 그 별만큼은 믿었습니다. 신앙, 그것은 단지 하느님의 채찍을 받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고 심판대로 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옥은 믿을 수 있었지만, 천국의 존재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¹⁷⁾

요조의 이러한 태도는 앞서 지적한 ‘독특한 원죄 관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하느님의 사랑은 믿지 못하면서도 그 별만큼은 믿었던 요조에게 있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어차피 구원받기 위해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요조는 굳이 자신의 뉘우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 사람들은 행복하구나. 나 같은 바보가,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여들어, 머지않아 두 사람을 망쳐 놓은 게지. 검소한 행복, 사이좋은 모녀. 아아, 만약에 하느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면, 한 번만, 평생에 단 한번만이라도 좋으니, 행복해지고 싶다.’¹⁸⁾

그러나 요조가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은 믿지 못하고 별만을 믿었다고 해서, 혹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요조는 ‘신’에 의한 구원은 믿지 못했지만, ‘신’ 이외의 것에서 자신의 구원을 찾고 있었다. 자신의 죄의 깊이에 괴로워하며 이를 뉘우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그가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던 것은 바로 ‘요시코’에게서였다.

어두컴컴한 가게 안에 앉아서 미소짓고 있는 요시코의 하얀 얼굴, ‘아아, 더러움을 모르는 순결함은 고귀한 것이로구나. 나는 이제까지, 나보다 젊은 처녀와 잔 적이 없다. 결혼하다. 그 때문에 아무리 커다란 슬픔이 따르더라도 좋다. 거질 정도로 커다란 기쁨을, 생애에 단 한 번만이라도 좋다. 처녀성의 아름다움이란, 바보 같은 시인의 달콤한 감상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결혼해서 봄이 되면 둘이서

자전거로 아오바 폭포를 보러 가자지.’하며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는, 이른바 ‘한판 승부’로 그 꽃을 훔치는 행위를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조는 ‘한판 승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듯이, 요시코와의 결혼을 통해 구원으로 가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보고자 했다. 커다란 슬픔을 감수하고라도, 생애 단 한 번, 거칠 정도의 커다란 기쁨을 느끼고자 한 요조는 텍스트 안에서 ‘순결한 신뢰의 상징’으로 표상되는 요시코를 통해 구원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 것이다. 요조가 ‘처녀성의 아름다움’이라고 언급한 순결함, 신뢰감은 요조를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미덕이었다. 요시코를 통해 그러한 미덕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느낀 요조는 그녀와의 결합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고, 나아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미덕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요조의 이러한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요조는 결국 ‘세상’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세상’이란 무한정 두려운 것으로, 요조가 ‘한판 승부’ 따위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용서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요시코는 신뢰의 천재입니다. 남을 의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비참함.

신에게 묻노라. 신뢰는 죄악인가?

요시코가 더럽혀졌다는 사실보다 요시코의 신뢰가 더럽혀졌다는 사실이, 나에게서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살아 있기 어려울 정도로 고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나처럼, 공연히 겁을 먹으며, 남의 안색만 살피고, 남을 믿는 능력에 금이 가 있는 인간에게는, 요시코의 티없는 신뢰감이, 그야말로 아오바 폭포처럼 상쾌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¹⁹⁾

티없이 맑은 신뢰감은 죄악인가?

유일한 희망이던 미덕에 대해서까지 의혹을 품게 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 수 없게 되었고, 의지하는 것이라곤 술뿐이었습니다.²⁰⁾

구원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요시코가 자신과 세상을 구해줄 수 있다고 믿었던 유일한 미덕인 ‘티없이 맑은 신뢰감’으로 인해 순결을 잃게 됨으로써, 요조는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된다. 요시코가 더럽혀지던 그 순간 요조가 느낀 감정이 분노도, 혐오도, 슬픔도 아닌 공포였다는 것은, 요조가 절망을 느낀 대상이 ‘순결을 잃은 요시코’가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미덕이라고 생각한 ‘신뢰감’을 이용하여 요시코를 더럽힌 ‘세상’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그 사건 이후 요조는 남들을 끝없이 의심하며,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 기쁨, 공명 등에서 영원히 멀어지게 되고, 역시 ‘세상’이란 무한정 두려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사카키바라 리치(榊原理知)는 앞에서 요조와 호리키가 벌였던 반대말 찾기 놀이 속에 드러난 요조의 사고가 유토피아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요시코의 강간 사건 기술을 통해 가혹하게 폭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²¹⁾, 이는 상당히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죄의 반대말을 찾으며 이를 알게 된다면 죄의 실체도 알 수 있을 것 같았던 요조의 생각은 요시코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되고, 여기서 요조는 요시코가 왜 죄를 지은 것인지 납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죄만을 강조하게 되면서, 결국 자신의 죄조차 그 실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마는 것이다.

하느님으로부터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그 벌만을 두려워하면서도, 요시코라는 순결하고 신뢰감있는 존재를 통해 자신의 구원을 갈망했던 요조는 결국 이렇게 좌절을 맛보게 되면서 결국 ‘인간 실격’이라는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된다.

3. ‘신’의 문제

요시코에게 걸었던 구원을 향한 마지막 기대가 무너지자 요조는 ‘신’을 향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한다.

신에게 묻노라. 무저항은 죄악인가?²²⁾

신에게 묻노라. 신뢰는 죄악인가?²³⁾

앞서 요조에게 있어서 신이란 사랑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벌을 내리는 신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벌을 내리시는 하느님께 요조는 자신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미덕이라고 믿었던 ‘신뢰’가 죄가 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신뢰는 요조가 유일하게 희망을 걸었던 덕목이었고, 요시코는 그 유일한 덕목으로 인해 순결을 잃고 더럽혀지게 되었다. 자신이 믿었던 유일한 것이 세상에 의해 파괴당했을 때 느낀 절망과 의구심을

요조는 신을 향해 토해내고 있다. 요조에게 있어서 신이란 죄를 사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벌을 내리는 존재이므로, 자신의 죄와 치부를 드러내어 이를 심판 받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신 앞에서만 가능한 행위였던 것이다.

텍스트 상에서 요조가 언급하고 있는 ‘신’, ‘하느님’이란 일반적으로 기독교적 의미의 신을 지칭한다고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요조가 심판 받고자 했던 대상이 과연 종교적 색채를 띤 하느님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상의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특히 작자가 심취했던 복음서 안의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자애롭고, 한없는 사랑 그 자체로 그려지고 있다. 신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는 별도로, 인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요조가 믿고 있는 벌을 내리시는 하느님, 단죄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독교상의 하느님이란 인간의 죄와 부정에 분노하면서도,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아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존재이다. 특히 작자가 심취했던 복음서에 부각된 하느님의 모습은 오히려 후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요조가 신의 ‘전자’의 모습만을 굳게 믿었다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컬하다. 이는 결국 요조가 믿고 두려워했던 ‘하느님’이란 존재가 기독교상의 ‘하느님’과는 다소 차별화된 존재라는 사실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다자이는 성서를 나르시즘적으로 대하고 이는 『인간실격』에 이르러 극치를 이룬다. 다자이가 믿었던 것은 부활시키는 자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소멸시키는 자였으며, 다자이의 격렬한 항의 역시, 신이 없는 절망에 빠진 니체의 그것이 되고 말았다」는 사토 야스마사의 지적처럼²⁴⁾, 텍스트에 등장하는 신이란 인류를 구원하고 영생을 약속해주는 어떤 종교적인 차원의 신이라기 보다, 인간과 인간 세상을 초월한 ‘절대자’의 형상에 더 가깝다고 보여진다. 요조는 자신이 처한 이 부조리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존재, 과연 내가 잘못된 것인지, 세상이 잘못된 것인지 판가름해줄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다.

학교에서 저는 존경받을 정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존경을 받는다는 관념도 또한 저를 몹시 두렵게 하였습니다. 거의 완전에 가까울 정도로 남들을 속이다가, 결국에는 어느 한 사람의 전지전능한 자에게 들통이 나서 호되게 당하고는, 죽고 싶을 정도의 창피를 당하는 것, 그것이 ‘존경을 받는다’는 상태에 대한 저의 정의였습니다. 남들을 속여서 ‘존경받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알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도 그 한 사람에게서

듣고는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그때의 분노와 복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만 하여도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²⁵⁾

요조가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익살’로서 자신을 포장하는 데 성공한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인간, ‘세상’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불안과 공포를 달래기 위해 익살이라는 필사의 서비스를 펼침으로서 ‘존경받을 정도로’ 사람들을 속이는 데 성공하였으나, 결국은 이것 역시 요조에게 걱정과 불안을 안기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미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요조는 일종의 눈속임인 자신의 ‘익살’이 「어느 한 사람의 전지전능한 자」에게 들통이 나서 호되게 당하고, 죽고 싶을 정도의 창피를 당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어느 한 사람의 전지전능한 자」야 말로 텍스트 상에 드러나 있는 언급들 중 요조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한다. 자신의 죄를 심판하여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모습이야말로, 신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 벌만을 믿는 요조에게 있어서 가장 친숙하고 타당한 신의 모습인 것이다.

그러나 요조가 과연 이러한 모습의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든다. 앞서 ‘신뢰의 천재’인 요시코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는다. 요조에게 있어서 이는 정당한 벌이 아니며, 이는 오히려 죄에 대한 정당한 벌을 내려야 할 신의 부재를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요조가 계속하여 신의 사랑이 아닌 벌만을 믿으며, 자신의 죄를 심판하여 그에 알맞는 벌을 내릴 신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은 곧, 지금 상황에는 그렇게 자신을 재단하고 벌을 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인다. 도고 가쓰미는 이와 관련하여 이는 결국 신이 없는 무신론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절대자가 없는 이상 요조의 이러한 인간 비판 역시 절대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²⁶⁾ 결국 단죄하는 신이 없는 세계에서 모든 것은 시간과 함께 흘러갈 뿐이고, 이러한 상대적 세계 속의 인간에게 행복도 불행도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실격』에는 다양한 성서적 메시지들이 텍스트상의 구체적

인 내용과 결합되어 드러나고 있다. 크게 죄의식, 구원, 신이라는 세 가지 테마 아래 각각 그 연관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죄의식’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주인공 요조는 자학적인 죄의식 속에서 그저 인간의 비참함에 절망하고 있을 뿐, 그 죄를 신 앞에 뉘우치지 못한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비참하다는 요조의 논리는 기독교의 원죄 의식과 그 성격 면에서 유사하지만, 이러한 관념이 속죄 행위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요조의 죄의식과 기독교적 원죄 관념이 차이를 나타내게 된 것은, ‘죄’를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조의 경우 ‘죄’의 반성과 속죄를 통해 구원을 받고자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비참함과 그 안에 담겨있는 ‘죄’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던지기 위해 계속하여 자신의 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조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갈망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요조는 분명히 구원을 바라고 있었다. 단지 요조는 이를 ‘속죄’하는 종교적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구원을 향한 마지막 미덕이라고 생각한 ‘티없는 신뢰심’의 표상인 요시코와의 결합을 통해 구원받고자 염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요시코가 ‘죄 없이’ 강간이라는 벌을 받게 되면서 요조의 이러한 염원은 무참히 깨지고, 요조는 자신이 구원을 위한 미덕이라고 믿었던 ‘무구한 신뢰심’이 죄인가 하는 의문에 빠지게 된.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진 요조는 아무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되고, 결국 ‘인간 실격’이라는 마지막 수순(手順)을 향해 치닫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신’의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텍스트 안에서 요조는 끊임없이 ‘신’을 향해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 과연 이를 기독교상의 하느님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남는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죄를 사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요조의 하느님을 기독교상의 ‘신’으로 보기에는 성서를 통해 드러난 ‘신’의 이미지 면에서 다소 미흡하다. ‘신’에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 인간 세상의 죄를 확인하고 부각시키려 했던 요조에게, 신이란 종교적인 차원의 것이라기 보다는 아주 객관적인 입장의 초월적인 존재, 절대자의 이미지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절대자가 과연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요조는 일관되게 자신의 죄를 헤아리고 이에 걸맞은 벌을 내리는 하느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요시코의 강간 사건을 계기로 과연 그런 신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 작품과 성서가 철학적, 윤리적으로 깊은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주인공 요조를 중심으로 하여 텍스트상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적 문제 의식들은 성서적 메시지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자 고유의 철학 속에서 변용되면서 그 종교적 테두리를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

【注】

- 1) 本田秋五、『物語戦後文學史(全)』、新潮社、1996年、p.256 참조
- 2) 「作者が自身の文學の最高のかたちでかきあげた遺書であり、自畫像である」
白井吉見、『太宰治研究』小山清編、筑摩書房、1958年、p.16
- 3) 「太宰治とキリスト教との關わりは、ともすれば畫一的、概括的に論じられてきたと云っても過言ではあるまい。」田中良彦、「太宰治とキリスト教」、『國文學解釋と鑑賞』11月号、至文堂、1985年、p.31
- 4) 野原一夫、「太宰治と聖書」、『新潮』12月号、1997年、p.168~ 참조
- 5) 佐古純一郎、『太宰治の文學』、朝文社、1992年、p.238、p.240 참조
- 6) 佐古純一郎編、『太宰治と聖書』、教文館、1983年、p.187~、p.208 참조
- 7) 自分には、人間の生活というものが、見当つかないのです。(텍스트 p.366)
- 8) 東郷克美・法橋和彦・村橋春洋・山内祥史、「シンポジウム・『人間失格』をめぐる」、
『國文學 解釋と鑑賞』11月号、至文堂、1985年、p.181
- 9) 日陰者、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人間の世に於いて、みじめな、敗者、惡德者を指差している言葉のようですが、自分は自分を生まれた時からの日陰者のような氣がして、世間から、あれは日陰者だと指差されている程のひとと逢うと、自分は必ず、優しい心になります。そうして、その自分の「優しい心」は、自身でうっとりするくらい優しい心でした。(텍스트 p.396)
- 10) 野原一夫、『太宰治と聖書』、「新潮」12月号、1997年、p.236
- 11) 야로슬라프 펠라칸, 『예수의 역사 2000년 <문화사 속의 그리스도의 위치>』, 동연, 1999년, p.131
- 12) 鳥居邦郎、「太宰治の作品を讀む・人間失格」、『國文學』5月号、至文堂、1957年、p.39
- 13) 關口安義、「『人間失格』論、太宰治」、教育出版センター、1979年、p.115
- 14) 「しかし、牢屋にいれられる事だけが罪じゃないんだ。罪のアントがわかれば、罪の實體もつかめるような氣がするんだけど、.....神、.....救い、.....愛、.....光、.....しかし、神にはサタンというアントがあるし、救いのアントは苦惱だろうし、愛には憎しみ、光には闇というアントがあり、善には惡、罪と祈り、罪と悔い、罪と告白、罪と、.....嗚呼、みんなシノニムだ、罪の對語は何だ。」(텍스트 p.450)
- 15) 響庭孝男、「作品論 人間失格」、『國文學』11月号、至文堂、1967年、p.102
- 16) 佐藤泰正、「ユダにしてキリスト、あるいはバプテスマのヨハネ」、『EUREKA』vol30-8、青土社、1998年、p.41
- 17) 自分は神にさえ、おびえていました。神の愛は信ぜられず、神の罪だけを信じているのでした。信仰。それは、ただ神の答えを受けるために、うなだれて審判の台に向う事のような氣がして、地獄は信ぜられても、天國の存在は、どうしても信ぜられなかったです。

(텍스트, p.429)

- 18) (幸福なんだ、この人たちは。自分という馬鹿者が、この二人のあいだにはいって、いまに二人を滅茶苦茶にするのだ。つつましい幸福。いい親子。幸福を、ああ、もし神様が、自分のような者の祈りでも聞いてくれるなら、いちどだけ、生涯にいちどだけでいい、祈る。) (텍스트, p.434)
- 19) ゆるすも、ゆるさぬもありません。ヨシ子は信頼の天才なのです。ひとを疑う事を知らなかったのです。しかし、それゆえの悲惨。
神に問う。信頼は罪なりや。
ヨシ子が汚されたという事よりも、ヨシ子の信頼が汚されたという事が、自分にとってそののち永く、生きておられないほどの苦惱の種になりました。自分のような、いやらしくおどおどして、ひとの顔いろばかり伺い、人を信じる能力が、ひび割れてしまっているものにとって、ヨシ子の無垢の信頼心は、それこそ青葉の瀧のようにすすがしがしく思われていたのです。(텍스트, p.453)
- 20) 無垢の信頼心は、罪なりや。
唯一のたのみの美質にさえ、疑惑を抱き、自分は、もはや何もかも、わけがわからなくなり、おもむくところは、ただアルコールだけになりました。(텍스트, p.454)
- 21) 榊原理知、「『人間失格』を読む營爲」、『ユリイカ』6月号、青土社、1998年、p.243
- 22) 神に問う。無抵抗は罪なりや? (텍스트, p.465)
- 23) 神に問う。信頼は罪なりや。(텍스트, p.453)
- 24) 佐藤泰正、「太宰治の文學」、『國文學 解釋と教材の研究』11月号、至文堂、1950年、p.19~20 참조
- 25) 自分は、そこでは、尊敬されていたのです。尊敬されるという觀念もまた、勘だ自分を、おびえさせました。ほとんど完全に近く人をだまして、そうして、或るひとりの全知全能の者に見破れ、木っ葉みじんにやられて、死ぬる以上の赤恥をかかせられる、それが、「尊敬される」という状態の自分の定義でありました。人間をだまして、「尊敬され」ても、誰かひとりが知っている、そうして、人間たちも、やがて、そのひとりから教えられて、だまされた事に氣づいた時、その時の人間たちの怒り、復讐は、いったい、まあ、どんなでしょうか。想像してさえ、身の毛がよだつ心地がするんです。(텍스트, p.374-375)
- 26) 東郷克美・法橋和彦・村橋春洋・山内祥史、「シンポジウム・『人間失格』をめぐる」、『國文學 解釋と鑑賞』11月号、至文堂、1985年、p.182 참조

『人間失格』に現れている聖書のメッセージ

채 속 향

太宰治の『人間失格』は、「展望」に1948年6月から8月まで連載していた作品である。本少考では、作者が自身の文學の最高のかたちでかきあげた遺書であり、自畫像であると評価されているこの作品と聖書のメッセージとの関係を中心として論じる。

『人間失格』には様々な聖書のメッセージがテキストの具體的内容と結合して現れている。罪意識、救い、神という三つのテーマの下で各々の連關性を指摘している、第一に‘罪意識’の問題について言及する。主人公の葉藏は、ただ自虐的な罪意識の中で人間の悲惨さに絶望しているばかりで、神の前でその罪を後悔しない。人間は本質的に悲惨な存在だという葉藏の論理は、その性格面でキリスト教の原罪意識と類似するが、こんな考えが贖罪行爲へと連結しないところからみれば、完璧に一致するとは言えない。葉藏の罪意識とキリスト教の原罪意識がこのような違いを表わしているのは、‘罪’をみる目の違いから生じると言える。葉藏の場合、‘罪’の反省と贖罪を通じて救われるために自分の罪を深く認識しているのではなく、人間の本質的な悲惨さとその中の罪の本質に對して疑問を投げかけるために自分の罪を強調しつづけているのである。

しかし葉藏が自分の罪を後悔しないからと言って、救いを求めないとは言えない。葉藏が救いを求めるのは明らかである。ただ葉藏はこれを‘贖罪’する宗教的な方式ではなくて、自分で救いのための最後の美質だと思った‘無垢な信頼心’の表象であるヨシ子との結合を通じて救われるてほしいのである。ところが、ヨシ子が何の罪もないのに強姦という罰を受けたことによってそんな葉藏の求めは無駄になって、葉藏は自分が救いのための美質だと信じていた‘無垢な信頼心’が罪なりやという疑問を抱くことになる。最後の期待さえ挫折してしまった葉藏は何の希望も持つことができなくて、結局‘人間失格’という最後に向いていくことになるのである。

終りに‘神’の問題について考えてみる。テキストの中で葉藏は、絶え間なく‘神’に對

して疑問を投げかけているが、はたしてこれをキリスト教の神として見なすかということは、多少疑問になると言える。人間の罪を許して慈しむ神ではなくて、罪に対して罰を與える葉藏の神を、キリスト教の‘神’として見なすには、葉藏の神は聖書に現れている‘神’のイメージが十分ではない。‘神’に疑問を投げかけながら、絶えずに自分の罪、世の中の罪を確認してむき出そうとした葉藏に、‘神’というのは宗教的な存在というよりは、しっかり客観的、超越的な存在で、絶対者のイメージに近いといえるのである。また、その絶対者が存在すると信じていたのかについても、もう一度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なぜかという、葉藏は一貫して自分の罪に対して罰を與える神について言及しているが、ヨシ子の強姦事件をきっかけで、はたしてそんな神が存在しているのかという疑問を表わしているからである。

このようにこの作品と聖書が哲學的、倫理的に深い関係があるというのは疑いの餘地がないといえる。テキストに、主人公の葉藏を中心として具體的に現れている様々な哲學的な問題意識は、聖書のメッセージをそのままに反映しているのではなく、作者の哲學の中で變容して、その宗教的な範圍を行き來しているのである。